

# 코로나 2년 2억6000만명 극빈층 전략 30시간마다 새로운 억만장자 탄생했다

###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보고서 억만장자들 자산 기하급수적 증가 죽음 부르는 불평등 해소 나서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전 세계에서 30시간마다 새 억만장자가 탄생한 반면 불평등 심화와 식량 가격 상승 등으로 새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인구가 최대 2억630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22~26일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맞춰 발표한 '고통으로 얻는 이익'(Profiting from Pain)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국 정부가 불평등 완화를 위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옥스팜은 2014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월 온라인으로 열린 다보스 어젠다 주간에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 보고서에 이어 이날 두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가브리엘라 부커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억만장자들에게는 '대박'과도 같았다"며 "반면 지난 수십 년간 빈곤 완화에서 이뤄온 진전은 역행하

게 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단순히 생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첫 24개월 동안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지난 23년간 증가한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증가했으며, 이들의 총 자산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4.4% 수준에서 현재 13.9%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노동자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에너지, 식품, 제약 등 독점이 쉬운 기업은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고, 이에 따라 식품-에너지 분야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이 기간 4530억 달러(약 577조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P, 셸 등 5대 에너지 회사는 1초당 2600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새로운 억만장자가 식품 분야에서는 62명, 제약 분야에서는 40명 탄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억만장자 수는 30시간마다 1명이 새로 탄생해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573명에서 현재 2668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자산은 13조 7천억 달러로 2년 전보다 3조 7800억 달러가 증가했다.

세계 10대 부자가 소유한 자산은 하위 40%인 31억 인구가 소유한 것보다 더 많고, 20대 후보의 자산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체 국가의 GDP를 합친 것보다 많다.

보고서는 그러나 억만장자들의 돈 잔치가 벌어

지는 동안 세계 곳곳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하고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같은 기간 최대 2억6300만 명이 새로 극빈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는 시간과 맞먹는 33시간마다 100만 명이 극빈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기간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만 400만 명의 여성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코로나 백신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낸 제약사들이 백신 통제권을 독점하면서 저소득 국가 인구의 87%가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부커 총재는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그들이 더 똑똑하거나 더 열심히 일해서 증가한 게 아니라 민영화와 독점, 규제와 노동자의 권리 박탈, 조세회피 등을 통해 엄청난 부를 쌓았고 이 모든 것은 정부의 공로로 이뤄질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엄청난 불평등은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말 그대로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옥스팜은 "백만장자에게 연간 재산세 2%, 억만장자에게 5%를 부과하면 연간 2조 5200억 달러를 거둬 전 세계 23억 명의 빈곤 구제, 모두를 위한 충분한 백신 생산, 저소득-중하위 소득 국가의 보편적 의료 및 사회적 보호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세계 각국 정부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당장 행동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폴란드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방문 폴란드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의회 연설을 마친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운데 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란히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외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했다. /연합뉴스

## WHO 사무총장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각국에 방역·백신 접종 대책 촉구

세계보건기구(WHO) 수장이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각국이 흔들림 없는 방역 대응과 백신 접종 대책을 촉구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 개막 연설에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종식되지 않는 한 어떤 곳에서도 끝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검사 거부 등의 현상에 큰 우려를 표했다. 거의 70개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검사를 급박한 곳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와 염기서열 분석을 거부하면 바이러스의 진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저개발국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도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

그가 공개한 WH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백신 접종률은 60%에 불과하다. 10억 명에 가까운 저소득국 주민이 아직 백신을 맞지 못했다고 한다.

대부분 선진국인 세계 57개국이 인구 대비 70% 이상의 접종률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어 최근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아프리카의 치명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나라가 하루빨리 70% 접종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보건 종사자, 기저질환자는 예외 없이 100%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 코로나로 2년간 말 안 타서 영국 군인들, 여왕 생일행사 준비 진땀

### "기마병 70%는 말 탄 경험 없어"

내달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96세 공식 생일 행사에서 성대한 퍼레이드를 보여야 할 영국 왕실 근위대와 기마부대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2년여간 행사를 실행할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왕실 근위대와 기마부대는 다음 달 2일 런던 중심부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 인근에서 열리는 '군기분열식'(Trooping the Colour)을 준비 중이다.

영국은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여왕 생일 축하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데, 올해에는 여왕 즉위 70주년 기념행사(플래티넘 주빌리)에 맞춰 함께 열린다.

이 기간 치러지는 대표적 행사인 군기분열식은 왕실 근위대와 기마부대가 총출동하는 퍼레이드로, 시민과 관광객들도 수천 명씩 몰려드는 100년 전통의 행사다.

군기분열식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왕궁 안뜰에서만 약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래 모습의 성대한 군기분열식은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셈이다.

올해 행사에는 왕실 근위대 등에 속한 군인 1500명과 연주자 400명, 말 250마리가 동원된다. 올해 행사의 최대 현안은 군인들이 2년 연속으로 군기분열식을 사실상 쉬면서 숙련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 참여하는 기마병 250명 중 70% 가까이 이전에 말을 탄 적이 없는 군인들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연합뉴스

## 때 이른 폭염·눈보라 이상기후 시달리는 미국

미국 본토가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다. CNN에 따르면 미국 북동부의 경우 주말인 21~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에서 뉴햄프셔주에 이르는 지역에서 평년 이맘때보다 수온주가 11~17도 더 오르는 등 일부 지역에서 사상 최고기온 기록이 세워졌다.

미 국립기상청(NWS)도 21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35.0도, 메릴랜드주 헤이거스타운 32.8도로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썼고, 필라델피아와 워싱턴DC의 텔레스 국제공항도 각각 35.0도, 33.3도로 사상 최고기온과 똑같은 기록을 다시 한번 작성했다고 밝혔다.

때 이른 폭염은 미 동부 해안에 형성된 고기압 때문으로, 고기압이 만든 뜨겁고 습한 대기가 남풍에 실려 북동부로 몰려온 것이다.

NWS는 22일 보스턴의 최고기온이 35.6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했다. 이는 이날의 기온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것이다.

반면, 서부의 콜로라도주 덴버 일대에는 21일 눈보라가 몰아치며 최대 50cm의 눈이 쌓였다. 콜로라도의 작은 마을인 크리플크릭에 50.8cm의 눈이 내렸고, 산악 지역에는 더 많은 눈이 쏟아졌다. /연합뉴스



폭설이 내린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한 주민이 집 앞의 눈을 치우고 있다. 주말인 21~22일 미국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때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서부 콜로라도주 덴버 일대에는 눈보라가 몰아쳤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